

제5장

봉헌식을 위한 안내와 봉헌 예절

1. 봉헌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33일간의 준비가 끝나면서 미사 전례나 혹은 간단한 예식을 통해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은 봉헌식 당일에 해야 할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둘째 시기 셋째 주가 끝나면 성모님의 손을 통해 자신을 사랑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친다는 의향을 가지고 고해성사, 영성체를 해야 한다. 영성체 후에는 이미 제시된 규칙대로 봉헌문을 바쳐야 한다. 인쇄된 봉헌문이 없으면 직접 쓰더라도 봉헌 당일에 자신이 바치는 봉헌문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날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세례 때 했던 약속에 성실치 못했던 것을 보속하기 위해서나 예수님과 성모님께 약속된 사람이라는 표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하신 어머니께 조그만 선물을 바치는 것이 좋다. 이 선물은 각자의 신심과 능력에 따라 어떠한 것이라도 된다. 예컨대 단식 한 번, 희생한 가지, 또는 애궁을 하거나 혹은 한 자루의 초를 바치는 것이라도 된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의 선한 마음을 굽어보시는 예수께서는 이를 만족해 하실 것이다”(「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231-232항).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봉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며 지금까지의 어긋난 삶을 개선하고 성모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의 새 삶을 다짐하는 세례성사의 갱신이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그리고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의 봉헌식을 갖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1/ 그동안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자신의 죄와 악습을 없애고 깨끗이 하는 마음으로 봉헌식을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꼭 받도록 한다.
- 2/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성모님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의향으로 자신의 봉헌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성모님의 사업을 돕기 위한 봉헌금도 준비한다.
- 3/ 봉헌은 세례성사의 갱신이므로 세례성사를 받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즉 불목한 친지나 이웃이 있으면 봉헌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고,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며, 개인 물건이나 소지품을 정리한다.
- 4/ 봉헌식 당일에는 목욕을 하고 외모를 단정하게 한다. 가능하면 남자는 양복이나 한복, 여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도록 한다.
- 5/ 루도비코 성인의 권유처럼, 봉헌식 당일에 예수님과 성모님께 영적인 선물을 바치면 더욱 좋다.

2. 무엇을 봉헌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봉헌해야 할 것인가? 이 봉헌식을 통해 성모님께 봉헌해야 하는 것에 대해 루도비코 성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이 신심은 마리아를 통하여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데에 있다. 우리가 마리아께 바쳐야 하는 것은 첫째, 우리의 몸과 몸의 모든 기능, 둘째,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모든 능력, 셋째, 우리의 외적인 재화, 즉 현재와 미래에 갖게 될 모든 물건

및 재산, 넷째,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재화,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공로와 덕행과 선행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질서에서 그리고 은총의 질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리아께 티끌 하나 남김없이 전부 바쳐야 한다. 즉 한 푼의 돈, 머리카락 한 오라기, 손톱만한 작은 선행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이러한 희생과 봉사를 한다 하여 마리아에 의해 마리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영예 이 외에 그 어떤 다른 보수를 요구하거나 희망해서도 안 된다. 설사 마리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너그럽고 자애로운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 그럴 리는 없지만 - 우리는 모든 것을 무조건 바쳐야 한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21항). 따라서 성모님께, 성모님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몸과 몸의 모든 기능.
- 2/ 영혼과 영혼의 모든 능력.
- 3/ 외적인 재화로서 현재나 미래에 갖게 될 모든 물건 및 재산.
- 4/ 내적이고 영적인 재화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갖게 될 모든 공로와 덕행과 선행.
- 5/ 하느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든 은총들.
- 6/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친구 등 내가 아는 모든 이들.
- 7/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정, 직장, 국가) 등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가장 완전하게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선행과 영신적인 모든 공로를 분배하고 처분할 권리까지도 성모님께 위탁하고 바치게 되면 성모님께 바침과 동시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 된다.

3. 봉헌 예절

봉헌 예절은 사제의 주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미사 중에 하거나, 사정에 따라서는 말씀 전례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간단한 예식으로 할 수도 있다. 봉헌식을 위한 장소는 성당이 가장 좋으며 다른 장소를 이용해도 된다. 봉헌 예절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성모상을 모시고 꽃과 초로 아름답게 꾸민다.
- 2/ 봉헌된 사람이라는 표지로 입는 성의인 갈색 스카폴라를 봉헌할 사람의 수만큼 준비하고 스카폴라 축성을 위한 성수와 성수채도 준비한다.
- 3/ 봉헌문과 봉헌 예물을 담은 바구니를 준비한다.

미사 중에 봉헌식을 할 경우에는 이 책에 있는 「성모님께 대한 봉헌 미사와 예절」을 이용하고, 개인적으로나 소수의 신자들만으로 봉헌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예식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변경할 수 있다.

사제 없이 신자들만의 봉헌식

- 1/ 자신의 봉헌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한다.
고해성사는 당일이나 미리 받도록 한다.
- 2/ 시작 성가
- 3/ 성경 봉독 : 요한 복음 19, 25-27
- 4/ 성모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묵상하기(10분-30분)
- 5/ 성세서원 갱신(262쪽)
- 6/ 봉헌문 낭독(개인, 단체 봉헌문)
- 7/ 축성된 스카폴라 착의
- 8/ 마침 성가

※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봉헌으로 인한 새 삶을 다짐하면서 봉헌식 중이나 끝난 후 성모님 앞에서 묵주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단체 봉헌문은 이 책의 부록 302-307쪽에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 1/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의 봉헌기도
- 2/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드리는 봉헌문
- 3/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 4/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봉헌문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의 봉헌기도

오 강생하신 영원한 지혜시며,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주님은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시요,
영원하신 성부의 아들이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의 아들이시나이다.
마음 깊이 주님을 흠송하오며, 아버지의 영원토록 빛나심 찬미하나이다.
강생하실 때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의 품속에 계셨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악마의 잔혹한 사슬 아래에서 저를 풀어주시려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태어나신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저를 당신의 충실한 종으로 만드시려
언제나 어머니 마리아께 기꺼이 순명하신 주님께
쉽없이 찬미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그러나 저는 얼마나 배은망덕했으며 불충했나이까?
제 의무를 아직도 채우지 못했사옵고,
주님의 자녀로 불리우긴 커녕 종이 되기에도 부당하나이다.
주님의 진노와 저버리심을 막을 공적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지극히 거룩하고 존엄하신 주님 어전에 나아갈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저 사이의 중개자로 제게 보내주신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의 전구에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 보존할 수 있도록
마리아께 달려가 의탁하나이다.

하례하나이다, 티없으신 마리아님. 하느님의 감실이시여, 하례하나이다.
영원한 지혜께서는 당신 안에서 천사들과 사람들의 찬미를 받기 원하시나이다.
하례하나이다, 하늘과 땅의 여왕이시여,
주님의 만물이 모두 당신 왕국에 승복하나이다.
하례하나이다, 죄의 피신처시여,
당신은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치 않으시니
천상 지혜를 구하려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께 바치는 이 비천한 종의 서원과 제물을 받으소서.
불충한 죄인인 저는 당신 손안에서 세례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나이다.
영원히 사탄을 끊고 그 영화와 행실을 버리겠나이다.
강생하신 지혜께 제 모든 것을 바치오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전보다 더 더욱 충실케 해주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 앞에서
저는 오늘 저의 어머니이시며 주인이신 분을 위해 모두를 바치나이다.
저의 육신과 영혼, 내적 외적 재산과 모든 행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선행을 바치나이다.
저를 다스릴 모든 권리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치오니,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영원토록 기꺼이 받아주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이 종의 봉헌을 받아주소서.
영원한 지혜께서 당신의 모성에 복종하셨음을 본받고자 하오며,
삼위의 하느님께서 당신께 내리신 그 총애를 감사하기 원하나이다.
저는 이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영광만을 찾고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께 순명하겠나이다.

찬미하올 어머니시여, 저를 사랑하올 당신 아드님의 영원한 종으로 바쳐주소서.
당신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셨듯이 당신을 통해 저를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지극히 자비의 어머니시여, 주님의 참된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께서 사랑하시고 가르치신 저희를 당신의 자녀요 종으로 이끄시며,
저를 어머니의 자녀로 받아주소서.

성실한 동정녀시여, 저로 하여금 어떤 일에 있어서나,
갱생하신 말씀이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요,
후계자이며, 종이 되게 해주시여,
세상에서는 당신의 전달과 표양을 따라 그리스도를 충만히 닮게 하여주시고,
천국에서는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소서.

아멘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드리는 봉헌문

파티마의 동정녀시며 자비의 어머니,
하늘과 땅의 여왕이시며 죄인들의 피신처이신 어머니,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영세 때 발한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복음 말씀대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속과의 안이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서약하나이다.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세상을 짓누르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어머니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희의 삶과 소명을 어머니께 맡겨 드리오며,
동시에 어머니의 원의대로 이를 수행하며 살기로 서약하나이다.

특히 기도와 보속의 정신을 새로이 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미사 성제와 사도직에 참여하고,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며,
매월 첫토요일은 미사에 참례하겠나이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살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덕행들,
특히 순결의 덕을 닦아 모든 이의 모범이 되겠나이다.

저희는 또한 교황과 교계제도 및 사제들과 일치함으로써,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방벽이 되기로 약속하나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보호에 힘입어,
교황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로 일치하는 사도들이 되겠나이다.
이러한 일치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오니,
어머니께서 저희 교황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어머니께 대한 새로워진 신심으로 힘껏 이끌어올 것을 약속하나이다.
무신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으며,
죄악이 갈수록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깊은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우러러 보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어지시고 능하신 어머니시여,
오늘도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주소서.
너그러우시며 연민이 지극하신
오, 감미로우신 동정 마리아님!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 어지신 어머니,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하늘의 모후요 죄인의 피신처이신 성모님,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저희를 봉헌하나이다.
- 저희 자신과 가진 것을 모두 바치며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 가정과 조국을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저희 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저희 안에 있는 것, 저희 주위에 있는 것
모두 성모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오로지 성모님 사랑의 한뫼를 나누어 주소서.
- 성모님,
이 봉헌대로 살고자
저희는 세례 때와 첫영성체 때에 한 서약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이다.
- 저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황과 그와 결합되어 있는 주교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법규를 충실히 지키며
특별히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
열심히 살아가며
자주 영성체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 하느님의 영광 지극하신 어머니,
인류의 어지신 어머니,
온 마음을 바쳐 어머니를 공경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저희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저희 조국과 온 세계에
티없이 깨끗하신 성심의 나라를 하루바삐 세우도록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 아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봉헌문

오! 인자하시고 티없이 조출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저의 죄악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머니 품안에 안기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닮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 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6장

봉헌식 이후의 삶 봉헌의 생활화

봉헌식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삶을 위한 시작이며 일종의 문이다. 지금까지의 33일간의 정화와 인식의 과정 역시도 봉헌을 생활화하기 위한 길을 닦은 것에 비길 수 있다. 봉헌은 바로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때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하며 성모님께 여쭙어보거나 또는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성모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의향과 인도하심에 따르는 믿음과 신뢰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자연스런 의탁과 맡김의 자세가 바로 봉헌의 생활화이다.

모든 것을 성모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은총의 간구마저 성모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 봉헌의 생활화이며, 그리고 이것은 앞서 묵상한 것처럼 성 삼위 하느님의 표양을 따르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방법으로 은총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일이다”(성 베르나르도).

그러므로 봉헌을 생활화하는 것은 비단 성모님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정립하는 문제이다. 성모님은 하느님께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를 도모할 수 있는데 봉헌을 생활화하기 위해, 즉 무엇보다도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매일 자신의 봉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일을 성모님께 봉헌한다.
- ② 성경은 물론이고 성모님에 관한 신심 서적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③ 매일 묵주기도를 드린다.
- ④ 첫토요일 신심을 비롯하여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따른다.
- ⑤ 썰기도에 참여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모님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이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매일 자신의 봉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일을 성모님께 봉헌한다.

봉헌을 생활화하고 봉헌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매일매일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즉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봉헌하면서 성모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봉헌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성모님의 보호와 현존의 표지인 갈색 스카폴라는 항시 착용하도록 한다. 그리고서 그날 하루에 주어진 모든 시간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께 봉헌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왜냐하면 루도비코 성인의 다음 말씀처럼 봉헌을 생활화하여 그것이 자신에게 아주 자연스런 삶의 방식이 되어갈 때 그는 그만큼 빨리 성화될 것이며 그만큼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나 한 후에 봉헌과 일치 행동을 때때로 새로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빨리 성화될 것이며, 그만큼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도달할 것이다. 마리아의 정신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일치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뒤따른다”(「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259항).

루도비코 성인은 봉헌의 생활화를 위해 다음의 이 기도문을 매일 화살 기도로 바치도록 권하고 있다.

“오 사랑하올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저는 주님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옵니다.”

성모님께의 완전한 봉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며 빠른 길이고 하느님을 섬김에 있어 가장 완전한 방법이기에 매일, 그리고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성모님의 도움뿐 아니라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갈색 스카폴라는 성모님께 봉헌된 표지로서 늘 착용해야 하는데 그것의 기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갈색 스카폴라의 기원과 의의

(1) 갈색 스카폴라의 기원

갈색 스카폴라는 1251년 7월 16일에 당시 가르멜 수도회 총장이던 성 시몬 스톡 신부(1195-1265년)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전해주시는 의복으로 이때부터 가르멜 수도회의 고유 의복이 되었다. 그 당시에 가르멜회 수도자들은 팔레스티나의 가르멜 산을 중심으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라센족의 침략으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어 유럽으로 피신하면서 존재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시몬 스톡 총장 신부는 가르멜 수도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성모님께 간구하면서 성모님의 보호의 표지를 청했다. 그리하여 1251년 7월 16일에 성모님께서 “누구든지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죽을 때에 영원한 지옥 불의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당신 보호의 표지로서 이른바 갈색 스카폴라를 전해 주셨다.

이를 계기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널리 전파되었으며 또한 스카폴라는 그리스도의 멍에의 상징이 되어 수도자들의 의복이 되었다. 그리고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수도복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수도자적 완덕 추구의 열망이나 하느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기 위한 열의 등으로 인해 스카폴라가 애용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크기로 작아지게 되었다.

(2) 갈색 스카폴라의 의의

갈색 스카폴라의 가장 큰 의의는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께 봉헌되고 예속된 표지라는 점이다. 스카폴라의 착용과 그것에 대한 신심으로 그는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이며 성모님의 자녀로 예속되어 있다는 점을 뚜렷이 드러낸다.

성모님은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에서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라고 하였고, 가르멜 산의 모후로 오셔서 무언 중에 갈색 스카폴라를 강조하셨다.

이 발현의 목격자인 루치아 수녀는 성모님이 왜 가르멜 산의 모후로 오셨

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스카폴라를 착용하도록 하려는 까닭이라고 하면서 “갈색 스카폴라는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대한 봉헌의 표지”라고 덧붙였다.

교황 비오 12세는 갈색 스카폴라 7백 주년을 기념하여 1951년 6월에 공포한 칙서를 통해 “갈색 스카폴라를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대한 봉헌의 전적인 표지가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함으로써 루치아 수녀의 이 판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스카폴라를 일컬어 “마리아의 예복”, “마리아의 복장”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갈색 스카폴라는 “누구든지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죽을 때에 영원한 지옥 불의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성모님의 약속에 의해 성모님의 보호의 표지이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이고, 성모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표지가 되었다.

2. 성서는 물론이고 성모님에 관한 신심 서적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다

TV를 비롯하여 라디오, 컴퓨터, 신문, 잡지 등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성경을 비롯한 영적 독서용 서적을 가까이 대하는 이는 그리 흔치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많은 이들이 현란한 매스미디어의 노예가 되다시피 거기에 하루 중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 만큼 매스미디어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

하지만 성모님께 봉헌되고,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된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하고 그 안에 제시된 구원의 길을 충실히 따라 걸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매일 꾸준하고 성실하게 읽고 그것을 자기 영혼을 위한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증가시키고 신심에 도움을 주는 서적을 읽어나가는 것도 봉헌의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가

장 우선적으로 읽어야 할 것은 루도비코 성인이 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다. 이 책은 성모님께 대한 가장 참된 신심으로서 봉헌의 필요성과 그 무한한 유익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봉헌한 이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루도비코 성인의 저서인 「마리아의 비밀」을 비롯하여 「목주기도의 비밀」 등도 다른 서적들에 우선하여 선택할 것을 권한다.

3. 매일 목주기도를 드린다

목주기도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애용되고 있는 기도로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며 드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진대, 바오로 6세 교황은 목주기도를 일컬어 “복음 전체의 요약”이며 “구원적인 강생에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성모송의 연속적인 기도는 그리스도께 대한 끝없는 찬미”(회칙 「마리아 공경」 중에서) 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특히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된 사람으로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목주기도를 드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야 하고 의무여야 한다. 오히려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바쳐 드리느냐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루도비코 성인은 이렇게 권하고 있다. “매일 목주기도를 드리되 시간이 있으면 매일 십오 단을 바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나의 이 말을 믿은 그날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와 마리아의 축복 안에 씨를 뿌려놓으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수확이 될 것이다”(「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254항).

목주기도는 인간의 영혼을 구하고 악의 세력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수단이 된다.

4. 첫토요일 신심을 비롯하여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따른다.

성모님께서서는 1917년의 파티마 발현 이후 당신의 “티없는 성심께 러시아를 봉헌할 것과 매달 첫토요일에 보속의 영성체를 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1925년 12월 10일에 루치아 수녀(파티마 발현의 목격자)에게 다시 오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첫토요일 신심을 요청하셨다.

“내 딸아, 가시에 둘러싸여 찢리고 있는 내 심장을 보아라. 은혜를 모르는 인류와 모욕과 망은으로 매 순간마다 찢르고 있구나. 적어도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그리고 연이어지는 다섯 번의 첫토요일에, 내 성심을 거스른 죄를 보상하기 위한 지향으로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며, 묵주기도 5단과 15분 동안 묵주기도의 열다섯 가지의 신비를 묵상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돕겠다고 말하여라.”

즉 첫토요일 신심이란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을 상해드린 자신의 죄와 인류의 죄를 보속하는 지향으로 매달 첫토요일마다 ① 미사 영성체를 하고 ② 고해성사를 받으며 ③ 묵주기도 5단을 드리고 ④ 15분 동안 묵주기도의 열다섯 가지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을 말한다. 성모님께서서는 이를 연이어지는 다섯 달 동안 계속한다면 죽음의 순간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20세기의 벽두에 파티마에 발현하신 것을 시작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외에도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천상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어머니로 모습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다. 그런데 이 빈번한 발현을 통해 인류에게 요청하신 것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묵주기도, 희생, 보속, 그리고 봉헌이다.

성모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인류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로 기울고 급기야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

께서 이 지상에 사람으로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은 인류 구원 사업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동참하고 계시는데 바로 여기에 당신께 봉헌된 자녀들도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자녀로 봉헌된 이들은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 어머니의 간절하신 요청 또한 적극적으로 채워드려야 할 것이다.

5. 썰기도에 참석한다

썰기도는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기도하라, 희생하라, 봉헌하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자신의 성화와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소그룹이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이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주는 사람이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단다”(1917년 8월 19일).

성모님께서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여섯 번 발현하셔서 세상의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 보속, 대신 보속 그리고 당신의 티없는 성심께 대한 봉헌의 삶을 요청하셨다. 그리고 썰기도는 20세기의 이 첫 발현에서 제시된 요청들을 받들어 자신과 이웃의 성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피타마의 메세지를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썰기도서를 이용하여 제시된 양식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장소는 성당의 감실 앞이 가장 적당하며 사정에 따라서 가정에서 해도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정상 이 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으며 혹 개인적으로 매일 하면 더욱 좋다.

봉헌의 갱신

성모님께 봉헌하고 난 뒤 성모님과 관련된 축일이나 대축일에 그 봉헌을 갱신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로써 봉헌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고 성모님과의 약속을 다시 상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봉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축일을 앞두고 9일 기도를 드리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미리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정이 허락된다면 33일간의 준비를 다시 해보는 것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혼자서 봉헌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날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한 후에 자신의 봉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약속을 드리도록 한다. 봉헌문을 새로운 마음으로 작성해보는 것도 좋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군대)에서는 일 년에 두 차례,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과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일일 피정을 가지면서 봉헌을 갱신하는 예식을 단체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다음의 축일과 대축일에 봉헌을 갱신할 경우에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 0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교황 레오 13세 인준)
 - 02월 02일 주님 봉헌 축일 (이하는 교황 비오 10세 인준)
 - 04월 28일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 기념일
 - 0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 0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09월 0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신 축일
 - 0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 10월 0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12월 0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 임종 시에